

EPIC 관점에서 본 사무엘 공동체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최세준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Sejun Choi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THE COMMUNITY OF SAMUEL FROM AN EPIC PERSPECTIVE**

Sejun Choi

Kwangju Younrag Church, Kwangju, South Korea

This thesis attempts to examine from EPIC's perspective the situations leading up to the training of leaders such as Samuel in the confusion of the private era, where faith was not passed down and the generation that God said was different. First of all, I briefly illuminate the background of the Samuel era. Confirming that the words and ideals are a faint generation, we list situations in which it is inevitable for a leader like Samuel to appear, and look at the factors that Samuel can nevertheless appear. In interpreting all these situations from the four perspectives of EPIC, the story that Samuel could experience under the guidance of priest Eli, the story that Samuel was able to advance to the altar of God with the devoted participation of his mother Hannah, Samuel's characters and those who still use faith as a means ahead of Samuel's ministry, and God who gives ability in the region of the Gentiles as we see it. And, for a long time, I saw a historian of how God prepared the hearts of the people of Israel and a community that yearned for God with one heart. From the point of view of all these EPICs, Samuel's circumstances showed that God was able to become a new transitional generation by recording the seemingly hopeless generation in the subtle relationships and situations of many

characters. In the present era in which we live, what we should think about through this paper is that the seniors of the previous faith have inherited many legacies of good faith, but the people who had faith in each era through generations have not been aware of it and are in a different generation, approaching carefully whether the word of holy God has not been diluted by being swept away by the trend of the world, and preparing for a leader like Samuel to come to this generation in the declining church situation. Therefore, we hope that this paper will prepare some people's minds to draw the spark of revival.

## 국문초록

최 세 준

광주영락교회, 광주, 대한민국

이 논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세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대와 다른세대를 살아온 사사시대의 혼란속에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양성되기까지의 상황들을 EPIC의 관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사무엘의 시대배경을 간략하게 조명한다. 말씀과 이상이 희미한 세대임을 사사시대의 배경을 통해 확인하여,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나열하고, 그럼에도 사무엘이 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 모든 상황들을 EPIC의 네 가지 관점으로 풀어보는데 엘리제사장의 안내로 인하여 사무엘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이야기, 어머니 한나의 헌신된 참여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 갈수 있던 이야기로 사무엘이란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었던 요인들과, 사무엘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준비케 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았다. 이 모든 EPIC의 관점에서 본 사무엘서의 정황들은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세대를 많은 등장인물들의 미묘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전환기적 세대가 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 이 논문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은 앞선 신앙의 선배님들이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많이 물려주셨지만, 세대를 거쳐 각 시대에 신앙을 품었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혹여 나 다른 세대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세상의 풍조속에 휩쓸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레 접근하며, 쇠퇴하는 교회정세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이 세대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그리하여 이 논문으로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부흥의 불씨를 당기는 일이 되기를 기대한다.

## 목차

감사의 글 .....	ix
그림 목차 .....	x
I. 서론 .....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B. 연구 방법 및 범위 .....	3
II. 사사 시대의 이해 .....	5
A.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 .....	5
B. 사사시대의 개척자들 .....	18
C.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 .....	23
III. EPIC 이론 설명 .....	25
A. 경험(Experience)적 교회 .....	26
B. 참여(Participation)적 교회 .....	27
C. 이미지(Image)적 교회 .....	29
D. 관계(Connection)적 교회 .....	30
IV. 사무엘의 EPIC 사역 .....	32
A. 경험함 - 엘리 제사장의 안내 .....	32
B. 참여함 - 한나의 참여와 결단 .....	49
C. 이미지 - 법궤를 빼앗김 .....	59
D. 연결됨 - 미스바로 모이기 .....	69
V. 에픽이론 적용의 실제 - 광주영락교회 사례 .....	75

	A. 광주영락교회 중등부 .....	75
	B. 에픽을 적용한 중등부 공동체 .....	75
	C. 에픽 적용된 중등부 공동체에 대한 평가 및 인터뷰 .....	82
VI.	결론 .....	85
	참고문헌 .....	88

## 감사의 글

이 논문이 결실을 맺기까지 도와시고 지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여기까지 계획하셔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들 드리며,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기대합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깊이 있는 지도를 해주신 격려와 응원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늘 옆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준 아내 고민경 사모에게 감사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더욱 행복하게 해준 사랑하는 아들 최지오, 최은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기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양가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논문이 결실을 맺기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며 지지해주신 김건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님들이 믿음과 헌신으로 물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유산들을 부족한 종이 다음세대를 위해 삶을 다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5월

최 세 준

## 그림목차

<그림1> 중등부 리트릿 홍보물

<그림2> 중등부 리트릿 행사 모습

<그림3> 달걀 부화 프로젝트

<그림4> 광주영락교회 웃놀이 대회 참여현장

<그림5> 늦게까지 회의하는 중등부 선생님들

<그림6> 학교전도: 영락게임 기안

## 제 I 장

### 서 론

####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많은 교세의 하락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의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교회가 여전히 희생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교회의 성도들은 감소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신학생들도 매우 급감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신학은 더욱 발전하고 있고, 설교도 다양하고 깊이 있으며 폭넓은 성경의 지식을 성도들이 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의 지식과 경험은 쌓여 가는데 교회의 교인은 줄어들어 가는 것이 모순임을 직감하고,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의 문제를 성경에서 찾겠다고 할 때, 본인은 이 시대의 문제와 심각의 정도가 구약성경의 사사시대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였다. 과거의 암흑과도 같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고, 이스라엘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 갔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모티브로 삼으려 한다. 사사시대가 이 시대와 맞닿아 있는 공통점을 몇 가지 찾아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희소해졌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신학생들이 부족해지니 교회에서 사역자를 청빙하는 기준도 많이 하향하였다. 이 모습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도

동일하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부족현상이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보면 대체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는 일들이  
 많다. 물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 교회가 감사할 일이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새로 변화된 젊은이들이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교회는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있고 회심하여 유입된 젊은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하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세번째는 말씀의 부재이다. 말씀은 대언 되며 전달되는 것이다.  
 전달하는 사람도 그것을 접하는 사람도 부재인 시대이다. 말씀과 이상이 희미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과 이상을 주시며,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다. 그 시대의 레위인들의 신앙사상을 접할 수  
 있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지금 현재의  
 목회하는 나를 포함한 사역자들은 오래전 선배님들의 신앙을 바르게 전수 받았는지  
 확인해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라기보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공동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를 끊어버릴 대안을 주시는데 그가 사무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는 과정을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의 관점으로 보고자  
 한다. 반복되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대안을 EPIC 이론에서  
 찾고자 한다. 그리고 구약의 사무엘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셨는지  
 분석하고 EPIC 이론을 대입 하려한다. 그리고 EPIC 이론을 적용한 광주영락교회  
 교육부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의 범위를 개괄하자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사시대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사시대의 공동체를 확인한다. 그리고 불모지 같은 땅에서도 가뭄의 단비 같은 신앙의 꽃을 핀 세명의 대표적 성경 인물들 다윗과 룯과 사무엘에 대하여 서술하고 마지막에 나열된 영적지도자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기며 세대 간 신앙 단절이 있던 시기지만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라난 환경을 분석하여 우리 시대에 접목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을 다룬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EPIC 이론의 토대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EPIC이론을 사무엘의 스토리로 대입하여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EPIC 이론의 관점에서 본 사무엘의 공동체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사무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같은 비전의 공동체를 각각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5장에서는 광주영락교회 중등부서에 적용한 사례와 평가 및 인터뷰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요약하고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역과 실제 사역에 적용한 것을 이야기한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앙의 전수가 단절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며 신앙 단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와 두 번째로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을 이 사사시대의 사무엘의 생애에 교차 대입하여 이 시대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며 광주영락교회에 EPIC이론을 적용하여 반응을 살펴보고 설문한다.

## 제 II 장

### 사사시대의 이해

#### A. 사사시대의 다른세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회개, 다시 구원받는 과정으로 반복되는 사

건의 연속이다. 이 여정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신 후에,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막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는 백성들을 둘러싸시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신32:10).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의 안내와 보호가 되셨다(시107:4). 여기서 하나님은 많은 자연 현상들을 통해 나타나시고, 백성들에게 직접, 혹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시68:7). 그러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후에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

불평하고 음식과 물을 요청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였다(시106:14).<sup>1</sup> 이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었다. 혹독한 광야 훈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다고 늘 믿음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불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다. 이들은 오히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모세를 분노케 하였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지침서를 주셨는데 그 책이 신명기이다.

십계명에서 유일신론을 언급하는 1계명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를 금하는 계명이다. 또한, 신명기 6장 14~15절에는 우상숭배의 결과가 곧 멸망이라고 설명하며 우상숭배를 금한다. 이로 볼 때, 신명기 사가에게 있어서 여호와께 짓는 죄의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의 죄이며 그 형벌 또한 가장 큰 것임을 볼 수 있다.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죄목 중에 대부분이 우상숭배의 죄이다.<sup>2</sup>

모세는 자신이 지도자로 있을 때에도 간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sup>1</sup> 조정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광야시대의 삶의 정황” (Th.M.,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13.

<sup>2</sup> 김규영,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와 역대기서의 관계성 연구” (Th.M., 대전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17.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노파심으로 신명기를 기록한 것이다. 신명기의 내용은 극단적이다. 유혹과 함정이 많은 가나안 땅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경고를 주는 말씀이다. 이들은 구별된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첫 번째가 잊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말씀을 대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레위인을 특별하게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안도하는 책임을 레위인들에게 주셨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지파로 제사장의 녹을 받으며 오로지 제의와 말씀에만 집중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를 거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레위인들은 단순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교만과 영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야만 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의를 수행하며 질병이나 위생 상태를 식별하고 감독하는 자이다. 레위인은 중심적인 제의 업무에서 배제되며 성막과 제구 등을 운송하고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는 자들로 나온다. 에스겔에서는 사독 자손 레위인만이 야훼 앞에서 기름과 피를 봉헌하는 제의를 수행하며(겔 40:46; 43:19; 44:15-16), 다른 레위인은 성전 문지기과 제물을 살육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온다(겔 44:11). 그러나 사독 자손이 아닌 레위인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겔 44:13-14). 신명기에서 레위인은 제사장 관련 본문들과 달리 제사장 집단과 구분되지 않으며 모두 야훼 앞에서 섬기는 자들로 나온다(신 18:6-7). 기타 레위인의 업무로는 언약궤를 메는 일(신 10:8)과 재판(신 17:9; 19:17; 21:5), 토라를 보관하고 복사하는 일(신 17:18), 저주와 축복을 선포(신 27:9)하며, 문둥병을 진단하기도 한다(신 24:8). 사사기 17-18장에서 레위인은 개인, 혹은 특정한 지파에게 고용되어 제사장의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모세의 노래에서 레위지파의 일은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신 33:8-10). 우림과 둠뎀으로 신탁 하는 일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 야훼 앞에서 분향하고 제의를 주관하는 세 가지이다.<sup>3</sup>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 점차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기 시작했고 레위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쉽게 동화되어 갔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해갔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10)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세대로 변하였다.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sup>3</sup> 허성균, “레위성읍에 관한 연구 민수기 35장, 수 21장, 역대상 6장을 중심으로” (Th.D.,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9), 63-64.

사건과 그 분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의 풍요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 팔레스타인이 속한 동지중해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뚜렷하게 나뉘는데, 우기는 10월의 이른 비로 시작하여 4-5월의 늦은 비로 끝난다. 겨울은 1년 중 녹색의 계절이고 여름은 타는 듯한 바람으로 식물을 죽이는 계절이다. 가나안 민족들의 신관은 이러한 우기와 건기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sup>4</sup> 그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가나안 땅의 풍요와 안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이스라엘 자손의 문화권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알 숭배에 대한 개념은 우상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준 농경문화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활의식의 일부로 보았을 것이다.<sup>5</sup>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었고, 영적 방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영적 쇠퇴는 반복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고통에 못 이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사사를 통하여 고통으로 해방이 되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반복된 모습들을 이스라엘은 사사기를 통해 보여왔다. 이때 나라를 대표하는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구원자’ 또는 군사적 ‘구조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나님은 사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재능과 은사들을 가진 그들을 사용하였다. 사사들의 직업과 신분은 아주

<sup>4</sup> Trygve N. D. Mettinger, 『하나님의 이름들』 (서울: 쿰란출판사, 2006), 166-7.

<sup>5</sup> 김남일, “바알(Baal)과 이스라엘.” 『대학과 복음』 no 2 (1998), 128.

다양하였고, 그들의 임무가 끝나면 보통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시대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자들이었다. 사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행동하는 사사들이었다.<sup>6</sup> 하지만 그들의 구원은 일시적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구원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사사가 죽으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것을 반복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말한다.<sup>7</sup> 그들은 정체성을 상실하였으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타협하며 살았다. 사사기 1장 27-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노예로 부리게 되었다.<sup>8</sup>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르게 전수하거나 전수받지 못하고 구부러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구조이다. 사사시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의 신앙은 더 큰 혼란과 타락으로 치닫게 된다. 사사기 17~19장을 보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표격인 레위인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아마 사사기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야기들로

<sup>6</sup> 김세엽, “사사기에 기초한 구속사적 설교형태에 관한 연구” (Th.M.,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3), 66.

<sup>7</sup> Ibid., 68.

<sup>8</sup> Ibid..

구성했을 것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과는 매우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사사기 1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4)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절도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것은 어머니의 재산 은 천백이었고, 재물을 도난당한 어머니가 저주를 한다. 이스라엘은 물건을 훔쳐간 자를 저주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sup>9</sup> 미가는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어머니께 말한다. 여기서 미가가 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란 질문을 해볼 때 훔쳤는가? 아니면 어떤 사정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본문은 침묵하고 있다.<sup>10</sup> 하지만 김지찬은

<sup>9</sup> 김영진, 『이스라엘의 구원자 야웨』 (서울: 이레서원, 2007), 206.

<sup>10</sup> 김진국, “사사기 17-18장의 문예적 구조분석 및 주해” (Th.M., 총신대학교대학원, 2011), 42.

은 1,100개는 분실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훔쳐간 것이다.<sup>11</sup> 라고 말한다.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은 1,100개와 관련된 이야기는 압선 삼손 기사(삿 16:5)와 연결된다. 들릴라는 각 블레셋 영주들에게서 은 1,100개의 금액의 돈을 뇌물로 받아 삼손을 무너뜨리는데 협조를 하고 받은 금액이 은 1,100이었다.<sup>12</sup> 사사기에서 은 1,100이라는 숫자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미가가 은 1,100개를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정확히 성경안에서는 이야기 하진 않지만 부정적으로 취득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미가의 고백에 어머니는 다시 태도를 바꿔 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노라 하며 아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우상을 새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말한다. 저주의 대상이 아들이 된 사실을 알고 자신이 행한 저주를 취소하면서 이제는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미가 어머니의 저주와 축복을 하는 행동은 사사 시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sup>13</sup> 축복은 개인의 감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이어야 함에도 은을 찾기 위해 저주하고 저주를 상쇄하기 위해 아들을 축복하는 행위는 인간 중심적인 이방 종교적 사상에서 답습한 이방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14</sup> 우리 시대에서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은 대화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사사기 저자는 이 모습을 비추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사기 17장 6~13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7) 유다 가족에 속한

<sup>11</sup> 김지찬,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9), 408

<sup>12</sup> 김진국, “사사기 17-18장의 문예적 구조분석 및 주해”, 43.

<sup>13</sup> Ibid., 44.

<sup>14</sup> Ibid., 45.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8)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코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9)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1)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12)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우리는 미가와 어머니의 행동과 결단이 한 가정의 무지함이지 않을까? 생각 할 수 있지만 미가가 제사를 담당할 레위인을 세우는 것을 보면 이 시대의 신앙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말아야 할 레위인까지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미가는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위하여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기 집 신당에 두고 레위인이 아닌 자신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의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본문에 없다. 신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침묵은 신당의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레위인 한 소년은 거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와 미가의 집에 도착 하면서 절정을 향해 나아간다. 여기서 질문을 해본다. 왜 레위 소년은 미가의 집까지 갔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당시 레위인들이 특정 지역을 분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둘째 그 당시는 아직 지파의 정착이나 지파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sup>15</sup> 사사기 17장 9절처럼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떠나는 장면 또한 타락한 이스라엘의 신앙공동체 조직을 단면으로 보여준다. 저자가 레위 소년을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소개하면서 각 지파별로 레위인이 대접 받지 못하는 즉, 레위인의 기능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종교적인 영적 공황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16</sup> 레위인은 일종의 녹을 받기로 계약하고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머물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미가는 고백한다. “(13)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절도를 하였고, 어머니는 저주를 하였는데, 저주의 대상이 아들임에 놀라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시게 하는 방법이 우상단지를 만들어 바쳐야겠다 생각 한 것이고, 우상 제단을 관리하며 제의할 사람이 필요하여 레위인을 청빙 하였고 레위인은 합의한 녹을 받으며 그 집의 제사장이 되기로 승낙하였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 하실거라 여긴 미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개인과 일부 레위인의 무지함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민족적 무지함이 여기서 탄로 난다. 사사기 18장 13~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13)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14)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

<sup>15</sup> Ibid., 54.

<sup>16</sup> Ibid., 56.

너희가 아느냐 그런 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15) 다섯 사람이 그 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16) 단 자손 육백 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17)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육백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18)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1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미가의 집으로부터 시작된 무지함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게까지 확장 된 것이다. 레위인 한 사람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는데 이제 한 지파 전체가 살 곳을 찾아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 거할 곳을 찾는 레위 소년의 영적 방황의 실체가 절정에 와서 한층 더 심화되는 복잡한 양상의 영적 타락의 실체를 보여준다.<sup>17</sup> 사실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된 신앙의 모습임을 사사기 저자는 시사한 것이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답게 살아라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질서안에서 공동체

---

<sup>17</sup> Ibid., 66.

훈련받아 그토록 열망하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귀속되어버려서 귀와 눈이 하나님께로 멀어져버린 것이다. 단지파가 레위인을 데리고 가기전에 단 지파의 정탐꾼들과 대면하였던 장면이 있다. 사사기 1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 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묻고 있는 것은 불안을 감추고자 하는 “자기모순”의 모습이며 이러한 그들의 질문은 방황하는 단 지파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불안한 단 지파의 앞길은 왠지 불길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단 지파의 질문에 소년 제사장은 “평안히 길을 가라”고 대답한다. 단 지파와 제사장의 대화를 보면 슬픈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단 지파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율법에서 벗어난 레위인에게 와서 여호와가 아닌 우상에게 묻고 있는 모습은 모순 그 자체이다.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은 약속의 땅을 버리는 일임에도 말이다.<sup>18</sup> 이렇듯 사사시대의 자기소견에 의한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한사람에서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큰 조직 안에 흐르는 복잡한 불신앙의 기류들이 세대를 아울러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아니라 사사기는 레위인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지적한다. 사사기 1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1)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헬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2)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

<sup>18</sup> Ibid., 69.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3)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레위인의 첩이 행음한 모습과 그 여인을 다시 데리러 가는 레위인의 윤리적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노인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베냐민의 불량배들을 맞닥뜨리면서 이러한 윤리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사사기 19장 22~29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23)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는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욱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25)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6)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27)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29)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 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여인이 아닌 레위인을 관계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니, 노인은  
 자신의 처녀 딸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 레위인이 자신이  
 달래서 데리고 왔던 첩을 붙잡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어 불량배들에게 밤새  
 고통받도록 방치하였다. 그녀는 사늘한 주검이 되어있었고 레위인은 분노로 가득  
 찼는지 시체를 신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는 칼을 가지고 그녀를 열 두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많은데  
 사사기 저자는 그들의 윤리관을 지적하는 것 같다. 남자가 남자를 탐한다던지,  
 자신의 딸을 내놓거나 첩을 강제로 볼모로 잡히게 한다던지, 강간하는 모습과 그로  
 인해 죽은 첩을 토막 내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상황들이 짧은 이야기 안에  
 응축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사기의 긴 시대 속에  
 일부분일 것이며 많은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그 시대의 실태이다. 그들이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레위인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 말씀의 부재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대로만 행하려 하였던 백성들의  
 순종의 부재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틀어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시대적인 왕일 뿐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데  
 왕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사람도 배우려는 사람도 없던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암울하며 절망적이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 희망과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들은

사사시대에서 꽃을 피웠던 롯과 사무엘과 다윗이다. 그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한다.

## B. 사사시대의 개척자들

롯과 사무엘과 다윗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며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바르게 잡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사시대의 개척자로 불리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다. 사사기 21장 25절의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 모압출신의 며느리도 있다. 롯기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 년쯤에 (5)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라고 성경은 시대를 먼저 이야기 한다. 롯은 이방 모압여인으로서,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이면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인물이다. 그녀는 유대인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룻의 신앙이 표현된다. 룻기 1장 11~17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좃았더라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남편이 죽은 후 모압땅에 남아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고, 그 지역의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고백한다. 룻기 1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룻의  
 이런 신앙 우선적 고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큰 도전이 된다. 바쁜 세상

속에서 개인적이고 때론 이기적일 수 있는 선택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결정에 우선 요소가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기대할 수 있다.

룻은 자신의 결정에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시어머니 고향 땅의 사람들에게  
팔시를 받았으며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고, 그 환경을 해결하는 것은 신앙에 의해  
선택한 룻의 몫이었다. 그러나 룻은 절망하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일하는 모습들도  
우리 시대에 귀감이 되는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다. 룻기 2장 1~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같지어다 하매 (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8)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0) 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룯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는 룯의 이런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은혜의 모습들도 보인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룯을 맞아들이게 하신 것이다. 결국 룯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가문의 위치에 서게 된다. 이것 또한 사사시대의 한 이야기지만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다. 룯은 이방인이었지만 무질서한 신앙의 기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였고, 보아스는 마음을 여러 룯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사사시대의 희망의 메시지 이다. 이들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 다윗의 가문은 사사시대의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듯 룯은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 피어난 신앙의 꽃이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어떻게 섭리가운데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

사사시대의 전환기를 이야기 한다면 다윗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다윗은 왕정시대의 사람이고는 하지만 사실 사사시대의 환경 속에서 왕이 된 인물이다. 그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전환기에 속해있다. 사도행전 13장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로 삼으셨다. 다윗이 죽고 분열 왕국 시대에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이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신앙은 시편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가 기록한 시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찬양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레위지와 제사장들의 고갈된 말씀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이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침서이며 모델이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에 여러 실수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상황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은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며, 사사시대의 전환기를 맞게 해준 중요한 인물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안에 성장되었고, 사무엘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나타내준다.

### C.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

깊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사사시대의 반복된 여정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마무리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배우도록 하며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 성장하게 하였다.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경건한 부부였고,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한 한나는 큰 고통을 겪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자식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한나는 그의 기도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고, 바쳐진 아이가 사무엘이다. 때문에 사무엘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배워나갔다. 그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맞아들이고 함께 성전에서 생활하며 사무엘을 지도하였다. 엘리 제사장 또한 사사시대의 제사장이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을 눈이 어둡고(삼상5:15),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삼상5:18)고 표현한다.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제사장이었고, 그로 인해 엘리 가문은 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삶과 사명을 가르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속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었고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심에 잘 응답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였을 때 엘리는 중요한 안내자였다. 사무엘이 세 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을 때, 엘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직감하고 “다시 가서 누워 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삼상 3:9)고

가르쳤다. 우리는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를 두고 한국교회 안에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어야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많은 선배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뛰어난 후배 목회자들을 교회를 위하여 사무엘을 세우는 마음으로 안내해야만 한다. 사사기는 세대가 지날수록 후배 사사가 선배 사사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경험을 후대에 전수해야 하는 것이다. 허나 사사시대에는 후대에 전수하지 못하여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쇠퇴하기만 하였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을 경계하거나 경쟁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양성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혹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노를 사서 심판을 앞두고 있어도 말이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안내자 삼아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

### 제 III 장

#### EPIC 이론 설명

세대가 반복되면서 현대의 교회는 성장의 정체기를 맞고 있다. 많은 이들은 현 상황에 대하여 대안을 찾고 시행하고 있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이렇게 말한다. 영적 추구를 위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영적 각성은 주로 교회 밖의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다. 저널리스트인 칩 브라운(Chip Brown)은 “교회가 황홀한 경험을 장려하기 보다는 억압하기 때문이다. 치유는 고사하고 황홀경은 분명히 내가 매주일 아침 출석하는 교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sup>1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함께 나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sup>20</sup>

이러한 도전 앞에서,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EPIC 이론을 제시하였다. 레너드 스위트는 1999년, “Soul Tsunami” 에서 EPIC 모델에 대하여 경험적(Experiential), 참여적(Participatory), 상호작용적(Interactive), 공동체적(Communal)으로 설명했다. 그 후 2000년에 출판된 Postmodern

<sup>19</sup>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73.

<sup>20</sup> Ibid., 63.

Pilgrims에서는 ‘I’ 를 이미지 추구적(Image-driven)으로 ‘C’ 를 연결적(Connected)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며 서로 관계된 것이며, 네 가지 모델은 상호 관련성을 가진 개념들이다.<sup>21</sup>

본 논문에서는 사무엘의 삶을 통해 EPIC 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 A. 경험(Experience)적 교회

경험적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를 말한다.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다. 레너드 스위트의 EPIC 이론에서 경험(Experience)은 예배와 신앙생활을 포함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총체적인 경험은 포스트모던 예배가 추구하는 새로운 목표다. 포스트모던예배의 설교자들은 설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총체적 경험을 창조해낸다. 이러한

‘쉐키나(Shekinah, 신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경험들은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온 감각을 한데 묶어 진, 선, 미로 가득 찬 천상의 빛에 뒤덮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이 임재하시는 찬란한 광채 속으로 이끈다.<sup>22</sup>

예배의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주력한다.

<sup>21</sup> 김도일, 『미래시대.미래세대.미래교육』 (서울: 기독교, 2013), 6. 재인용.

<sup>22</sup>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78-79.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깊이 만날 수 있을 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나아가야한다. 한국교회도 문화적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야를 넓혀야 한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자연스레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재계의 전도사들은 “내가 경험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 성경의 전도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경험의 핵심에 계신다고 말한다.<sup>23</sup> 따라서, 경험적 교회는 신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는 교회를 통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B. 참여(Participation)적 교회

EPIC 이론의 두 번째 요소인 참여(Participation)는 신자들이 예배와 교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지향한다. 하나님도 교회 안에 깊은 참여를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은 참여성이 짙은 사건이다.<sup>24</sup> 심지어 성육신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참여를 요구하셔서,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sup>23</sup>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2.

<sup>24</sup> Ibid., 111.

속으로 보내 창조주와 짝을 이루어 그분의 사명을 실천하라고 명하셨다.<sup>25</sup>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무감으로 살지 않으셨다. 그분의 삶에는 기쁨과 에너지가 흘러넘쳤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셨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무감으로 혹은 죄책감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천국행 차표를 얻어 볼까 하는 요량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포근하고도 풍성한 경험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동네에서 하고 계신 사역의 향기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sup>26</sup> 어떤 체험을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자극이 되지만, 직접 참여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에 참여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sup>27</sup>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특정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예배나 교회의 주요 활동을 이끌어갔다. 참여적 교회는 모든 성도가 주체가 되어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기여하는 공동체적 모델을 추구한다. 진정한 참여는 가지각색의 참여자를 필요로 한다. 각자가 자신의 독특한 은사와 사교, 감성으로 기여함으로써 기발한 생각이 줄줄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의견 교환이 일어나야 한다. 참여자가 다양할수록, 체험도 실감나고 독창적이게 된다.<sup>28</sup> 이를 위해 교회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 각자가 은사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배에서 찬양, 기도, 성경 봉독 등 다양한 부분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의 사역에서도 봉사, 선교, 교육 등의

---

<sup>25</sup> Ibid.

<sup>26</sup> Ibid., 23.

<sup>27</sup> Ibid., 90.

<sup>28</sup> Ibid., 123.

다양한 영역에서 성도들의 참여를 돕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교회의 일원이 아닌 교회의 동역자로서 사역에 함께 하며, 자신의 신앙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참여적 교회는 성도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하고, 각자의 신앙적 책임감을 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젊은 세대에게 교회가 그들의 의견과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고, 실제로도 그 참여가 활발해 질수록 젊은 세대가 더 깊은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결국, 참여적 교회는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교회의 공동체적 힘이 강화된다.

### C. 이미지(Image)적 교회

말에는 힘이 있다. 이미지에 더 큰 힘이 있다. 에픽 경험은 힘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풍부한 이미지를 통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한다.<sup>29</sup> 이미지와 상호작용은 오늘날 시각적 문화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대의 상표가 ‘고유한 이야기들’ 이고,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이미지와 이야기들이라면 기독교는 가장 거대한 상표가 되어야 한다.<sup>30</sup>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에서의 이미지는 성경의 진리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직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sup>29</sup>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38.

<sup>30</sup>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4.

시대에 상응하여 전달하고 세상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은유적 전도, 은유적 설교 등 이미지화된 언어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는 새로운 영상 문화를 만들어내는 영상 테크놀로지 시대 한가운데 살면서도 인쇄에 붙들린 채로 남아 있다. 그 때문에 시(詩)로 돌아가려는 거대한 회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sup>31</sup>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것은 교회의 이미지를 그 자체로 신성시하거나, 단순히 외적 형식으로만 남겨두는 태도는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이미지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데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영’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최신식이고 첨단 기술을 달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10곱하기 0은 여전히 0이다.<sup>32</sup> 이미지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관계 맺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상징이 아니기 때문이다.

#### D. 관계(Connection)적 교회

오늘날 모든 것은 관계와 협력의 문제다. 고전적인 것이든 유행을 타는 것이든 문화가 디지털화되면 될수록 더욱 생기 가득한 인간적인 것이 매력을 끈다. 경제, 사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비인격화되면 될수록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은 깊어진다. 음반으로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라이브 공연이 주는 공동체의

---

<sup>31</sup> Ibid., 139.

<sup>32</sup> Ibid., 143.

경험이 파괴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강화된다.<sup>33</sup> 나는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 고등학교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농구를 할 때, 룰도 모르는 나에게 열심히는 한다고 악바리라 별명을 붙여주었고, 함께 농구 하던 형들 친구들이 악바리라 불러주었다. 그렇게 모두가 나에게 붙여준 별명은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농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필요로 하며 결속이 되어있으면 시너지가 된다. 비록 지금 당장 신앙심이 많지 않더라도 더 오고 싶은 교회가 된다. 오고 싶은 교회에 자주 머물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말씀을 듣는 횟수도 많아지며 신앙이 커지며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관계적 교회는 성도들 개개인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함께 서로를 세우는 데 집중한다. 이런 교회는 젊은 세대의 신앙성장과 발전에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다.

---

<sup>33</sup> Ibid., 167.

## 제 IV 장

### 사무엘의 EPIC 사역

#### A. 경험함 - 엘리 제사장의 안내

모세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을 때 그 것을 곁에서 지켜본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있었다. 출애굽기 33장 9~11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 (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1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양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훗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준비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는 모습이 나온다. 여호수아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1)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에게 신앙을 전수하였고 그 후에 신앙을 전승해야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전수된 신앙을 가진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며 말씀을 이어받는 모습이 있지 않다. 사사기 1장1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1)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사사기 2장 8~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8)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9)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들의 신앙은 바알을 향하여 갔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흐름이 끊기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다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첫 번째 사사 옷니엘이다. 이 옷니엘이 이스라엘을 40년 치리하고 죽게 되는데 여기서도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으며 다시 믿음의 흐름이 끊긴다. 사사기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3)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훗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 그리고 역시나 에훗이 죽은 후에 믿음의 흐름이 끊긴다.

이렇듯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나 이어지지 않고 고통하다 회복하고 또 믿음의 흐름이 끊기는 것이 반복되는 시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신앙을 배워야 했고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 해야만 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로 다음세대들을 안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신앙의 안내가 결여가 된 시대이며 그로 인해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편에서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한 세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믿음의 선배 엘리제사장은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 그리고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다.’ 그들의 타이틀은 ‘하나님의 백성’ 이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왕이 없으므로’ 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왕이 없으므로 방향성을 잃은 세대, 사사시대이다. 우리 한국교회도 겉허히 사사시대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이 있고, 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점점 신앙의 수준들이 하향화 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사사시대와 닮은 점이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는 이상 신앙의 기준은 확인할 수 없다. 바리새인 또한 그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믿음이 좋다 하는 집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겉허히 전제해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해야 한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무엘이 다음세대에 일어나기 위해선 이 시대에 엘리제사장의 안내가 있어야 한다. 차세대 사역자 사무엘이 선배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경로를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이신

엘리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며(삼상3:2), 비둔하며(삼상5:18) 부모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방관 하였다.(삼상2:29) 하지만 성경에 비추어진 엘리 제사장의 대화들은 지극히 배려있고, 사려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지금의 사무엘을 빚어가셨다.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속에 엘리 제사장의 안내를 이용하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 누구든 사용 하시겠지만 성경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없었더라면 사무엘은 성전에 부름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예민함이 없어 한나의 간절한 애痛的 기도를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으로 오해하였지만 한나의 심정을 들었을 때, 그는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나를 축복하였다. 엘리 제사장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사랑을 주어도 해결 못한 그의 근심을 단번에 해결한다. 또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를 한뒤 사무엘을 드리려 할 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거두어준다.

엘리는 비록 가정교육은 성공적이지 못하였지만, 동시에 사무엘을 키워낸 장본인이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심판 받기로 결정된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 또한 결과적으로 아들들이 어긋나게 행동하였으나 성경에 기록된 엘리의 자녀를 향한 권면은 옳은 가르침이었다. 사무엘상 2장 24~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24)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 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저주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받아드리는 모습 또한 본받을 만하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모습은 요즘 시대의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한다.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자기에 쏟아질 때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무엘서 강해 저자 유진 피터슨은 저주받은 엘리 제사장의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엘리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엘리에게는 그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일찍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2:27), 그것은  
 엘리와 그의 가족에게 임할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두 메시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외부사람, 즉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이 전해주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가족 안에서 그리고 성소  
 내부로부터 전해졌다. 심판의 메시지는 가혹한 운명에 관한 것이지만,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전달되고 있다. 엘리는 경외함으로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데, 용감하기까지 하다. 그는 엄중한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고는 기꺼이 그 말씀을 인정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건  
 반드시 옳다 엘리는 궁지에 몰렸지만 옳은 것을 받아들일 정도로 여전히

제사장이다.<sup>34</sup>

또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으셨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다. 정작 메시지는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찾으셨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을 감지 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은 언짢을 수 있다. 신앙을 가르치는 대선배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본임임을 알기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법을 알려준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다. “(9)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의 위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적극 지원하는 엘리 제사장이자.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18)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배경에는 그의 스승 엘리 제사장의 안내가 있기 때문이다. 사사시대는 오래토록 신앙의 대가 끊겨 있는 상태이며 그들은 신앙이라 하나 성경은 ‘각각 소견에 옳은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 평가 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빗대어 보자면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없다 하여도 신앙의 선배님들의 믿음을 전수 받고, 후배에게 바르게 전수 해야한다. 내가 신앙의 선배의

---

<sup>34</sup> Eugene Peteroson, 『사무엘서 강해』 박성혁 역 (서울: 아바서원, 2020), 66.

위치에 있을 때,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하고, 둘째로 사사시대와 같은 대 끊김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믿음의 전수가 끊겨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혹여나 내가 부족하더라도 사무엘과 같은 후배를 양성하기 위하여서는 엘리와 같은 안내자의 마음이 필요하다. 나보다 더 능력있고 너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사무엘을 우리는 마음에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누군가는 제2의 사무엘이 되어서 앞으로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인 엘리 제사장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소양은 앞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번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무엘의 부정적인 면도 살펴보고자 한다.

사무엘상 8장은 서두에 사무엘이 늙었다는 언급을 한다. 본래 나이가 많다는 것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잠 16:31; 20:29), 젊은 사람들의 공경을 받아야 했지만(레 19:32), 신체적·정신적 연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창 27:1; 삼상 4:15, 18; 왕상 1:1; 14:4). 특히 사무엘상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다. 성서의 화자는 엘리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죽었을 때 그 이유를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삼상 4:18)고 말한다. 의자에 앉아서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던 엘리는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많은 나이로 인한 육체적인 연약함과 비대한 몸은 그 충격을 받아내지 못하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졌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은 사무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sup>35</sup>

우리는 사무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사사라 떠올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다 공혹을 입고 사랑받으며 성장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이다. 성경은 엘리의 부정적인 면을 시사하듯, 동일한 잣대로 사무엘을 판단한다. 사무엘상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1) 사무엘이 늙으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늙었으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행실을 이야기 한다. 이는 사무엘서 2장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들을 떠올리게 된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늙고난 후에 행한 일들은 부정적이며, 하나님을 노엽게 할만한 행위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이다. 사무엘서 2장은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12)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행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사무엘상 2장 17절은 “(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그들이

---

<sup>35</sup> 탁명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전환기에 나타난 갈등연구” (Th.D., 서울기독교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69.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지 마음을 지적하였으며, 사무엘상 2장 22절~25에서는 엘리의 자녀양육의 모습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한다. “(22)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본문은 엘리가 매우 늙었음을 강조하며 엘리의 부정적인 말로 연상시키며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셨는데, 사무엘상 8장에서 성경은 비슷한 분위기로 사무엘의 늙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때에도 시행하지 않았던 세습도 이루어지고 있다. 화자는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한 것을 그의 늙음과 연관시키고 있다. 사사직의 세습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전의 돌라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만(삿10:1-2), 그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 단회성으로 그쳤다. 김구원은 사사가 세습이 아니라 ‘은혜(카리스마)의 원리’에 따라 다음 세대로 이양된다고 한다. 즉, 야웨의 영이 임한 자나 야웨에 의해 택함을 받은 자가 사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사가 죽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나 후손에서 물려줄 수가 없었다. 엘리도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하지만(삼상 4:18b), 그의 아들들은 단 한 번도 사사로 불려진 적이 없다는 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들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야웨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무엘의 자의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구약에서 레위인이 혈통적인 집단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사무엘처럼 아론계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경우(삼상 2:18)가 있으며, 리위인의 불안정한 생활 모습이나(삿 18), 레위인이 ‘나그네’ <게르>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흔적(신 26:12-13)에 반영되어 있다.<sup>37</sup> 츠무라(D. T. Tsumura)는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경건하지 못한 “왕권 실험”(dynastic experiment)을 하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사무엘이 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그가 왕권실험의 하나로 세습 제도를 활용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왕정은 이방나라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왕권은 기본적으로 왕에게 권력을 허용한 국가의 수호신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대 세계의 왕권은 모두 그 국가 신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방 왕권을 모방한다는 것은 야웨 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명령(삼상 7:3)한 사무엘의 행동을 왕권 실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로빈슨(Robinson)은 사무엘의 은퇴나 그의 아들들에 대한 사사 임명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사무엘상 8:1-3은 단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위한 구실(pretext)일 뿐 사실과는 상관이 없는 해설자의 해설이라고 본다. 그는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삼상7:15), 그의 고별사에는 아들들의 악행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삼상12:2), 또 사사직은 아들에게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8장에서 사무엘

<sup>36</sup> Ibid., 69-70.

<sup>37</sup> 허성균, “레위성읍에 관한 연구 민수기 35장, 수 21장, 역대상 6장을 중심으로”, 61.

아들들의 사사직은 다른 사사들처럼 구원자의 직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강사문은 이에 대하여 사무엘서의 기록에 은퇴나 임명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사무엘이 그의 아들에게 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5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정 요구에 대하여 사무엘이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이 요구를 자신과 아들들에 대한 불신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문(삼상 8장)의 내용으로 보아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사직을 세습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버지에 이어서 사사직을 수행한 경우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드온이 아비멜렉을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위에 올라 사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돌라 역시 비록 세습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영향력은 에브라임 산지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사직을 세습한 경우는 사무엘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의 늠름은 사리분별에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려는 이방나라 세습 제도를 모방한 것이라고 본다. 이는 사무엘이 추락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sup>38</sup>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과 엘리의 말년을 매우 유사하게 그리고 있다. 엘리와 사무엘을 똑같이 ‘늠름’ (삼상 2:22; 4:18; 8:1, 5)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 각자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삼상2:12-17, 22; 8:3-5).

---

<sup>38</sup> Ibid., 70-72.

이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자신이 지녔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고,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백성들과 갈등을 일으켰으며, 결국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사울과도 갈등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sup>39</sup>

엘리와 사무엘을 같은 시각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볼 때, 두 지도자는 늙었고, 자녀교육에 실패하였는데 엘리는 자신의 상황에 순응하여 사무엘을 세웠고, 사무엘은 인정하지 못하여 후계자 사울과 갈등을 일으켰다. 이스라엘을 위한 공헌도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수준을 떠나서 볼 때, 신앙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공헌한 것은 엘리 제사장에 더 가깝다. 성경안에서 엘리의 인생은 사무엘의 인생에 비교할 수도 없이 초라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엘리는 사무엘을 양성하였고,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은 왕과 평생 만나지도 않을 원수처럼 지내었기 때문이다. 이 사무엘의 모습은 마치 현대 교회의 선배 목사님과 후배 지도자의 마찰들을 상기시킨다. 한국교회가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며 기름부을 때, 비록 선배 목사님들보다 소양이 부족하거나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갭을 분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주신 순리대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안내자의 역할 하는 것이 더욱 유의하다. 혹여나 사무엘처럼 교회나 사회에 헌신도가 높거나, 더욱 구별되어 귀감이 되는 행실과 감동케 하는 사역을 하였다 할지라도, 부족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였지만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안내하였던 안내자의 모습들이 다음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sup>39</sup> Ibid., 72.

성서는 사무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왕정 요구에 의해 야웨의 명령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은 왕정에 대한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백성들을 설득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야웨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을 명하였고, 사무엘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동의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왕정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는 이후에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명령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했고, 거기에는 야웨의 명령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도 야웨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를 비난했다.<sup>40</sup>

오랜 헌신과 희생을 동반한 목회자의 명성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 우리를 비롯한 성경속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였고 봉사하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무엘을 보고 있다. 때문에 어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권위로운 말 앞에서는 분별없이 듣곤 한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또한 그렇다. 탁명수는 사무엘이 사무엘상 8장에서는 장로들과 기득권 싸움을 하였고, 사무엘상 13장, 15장에서 주도권 다툼을 했다고 표현한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종국에는 종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엄중한 경고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야웨의 뜻을 물었고, 야웨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

<sup>40</sup> Ibid., 83.

사무엘은 야웨가 허락하셨음에도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백성들을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다(삼상 8:22). 백성들을 해산시킨 사무엘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해산시킨 이유에 대하여, 클레인은 사울이 나귀들을 수색하고 또한 한 나라를 발견한다는 이야기(9:1-10:16)를 통합할 수 있게 만들고, 라마 대신 미스바에서 있었던 다음 집회의 소집(10:17-27)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는 아직 왕을 세우라는 명령만 떨어졌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가 지명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왕정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왕정을 허락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가운데 많은 것을 새로운 체제의 지도자인 왕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사직 세습까지 감행한 사무엘의 행위를 감안할 때 야웨의 허락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든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사무엘의 경우에는 이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외적의 위협이 완전히 해소된 된 것은 아니지만 평화의 시대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내적으로 갈등하였을 것이다.<sup>41</sup>

사무엘은 왕의 선발과 관련하여 두 번이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은 기도를 하고, 야웨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지만, 아무 대안도 없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삼상8:22). 제비뽑기 방법으로 사울이 선택되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왕의만세’ 라고 화답까지 했음에도 사무엘은

---

<sup>41</sup> Ibid., 90-91.

재차 아무 대안도 없이 백성들을 돌려보냈다.<sup>42</sup>

‘기득권’, ‘주도권’ 하면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신앙공동체 안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지금은 비기독교인들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안력 싸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사무엘도 사람이기에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지금껏 쌓아왔던 명성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권위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자신의 이권을 위한 정치 싸움이 팽배 하다고 느끼던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낮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무엘의 고별설교(삼상 12장)에서 드러난 왕정정치에 대한 그의 입장은 야웨 하나님을 배반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백성과 왕에게 야웨를 경외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조상이 치렀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다. 클레인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반역적이 아니라 순종적이라면 축복이 될 수 있고(삼상 12:14), 백성들이 불순종하거나 반역한다면 저주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자신의 중재자 역할을 결코 쉬지않을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사울과 백성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무엘의 연설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25절)고 끝난다. 이 선언과 각오는 13장과 15장에서 사울과의 주도권 다툼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다.<sup>43</sup>

13장은 전쟁 중에 사무엘이 스스로 약속한 7일안에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행했던 제사의식 대하여 분쟁하는 모습이고, 15장은 헤렘법에 대한 다툼이다. 사무엘상 13장

<sup>42</sup> Ibid., 91.

<sup>43</sup> Ibid., 90-93.

8~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8)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야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엄밀히 따지면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다. 7일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의식에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과 야웨의 책망을 들어야 하고, 야웨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취급한 사무엘이 망령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sup>44</sup> 우린 이 모습에서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늦지 않았나 생각해볼 수 있다. 중요하고 급박한 전쟁의 순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도자의 방식일 수 있다. 정계도 나라가 위기일 때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집

---

<sup>44</sup> Ibid., 96.

단이 흥하기 위하여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을 종종 본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 여기니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교회에도 같은 방식이 존재하는 듯 하다. 남아있는 자가 영적 지도자며, 성도들은 교회의 주도층에 따르는 성향을 갖기에 더욱 가능한 것이다. 사무엘상 13장을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무엘은 사울이 ‘망령되이’ (לַמָּוֹת, 싸칼) 행하고, 야웨의 명령을 어긴 것(삼상 13:13)이라는 그의 주장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7일을 기다리는 것은(삼상 10:8) 사무엘의 일방적인 통고였을 뿐, 이것이 야웨의 명령이라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사무엘이 야웨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한내용(삼상 9:27-10:7)은 세 가지로, 7일을 기다리라는 내용은 야웨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sup>45</sup> 사무엘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을 침범하도록 유도했으며, 그것을 기회로 사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결론은 15장의 아말렉과 전쟁에서 진멸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sup>46</sup> 결국 사무엘은 ‘기득권’, ‘주도권’ 다툼에서 끝내 승리하였다. 사울은 탄핵의 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주도권 다툼에서 사무엘이 승리를 거두고 그를 폐위시킨다. 사울의 자리는 ‘오직 야웨’ 라고 부르짖는 사무엘 당파에 의하여 마련되었으며, 그는 그 당파의 구체적이며 위험한 충성의 행동을 앞장서서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자였다.<sup>264</sup> 사울은 이들의 위임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그들로부터 탄핵을 받는 것이었다. 결국 그의 왕위는 그 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삼상 15:28)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47</sup> 오랜 세월 1대 왕으로 40년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통치시절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흥하게 하

---

<sup>45</sup> Ibid., 94.

<sup>46</sup> Ibid., 95.

<sup>47</sup> Ibid., 105.

였지만 사울은 후대에도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라며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사무엘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았지만,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일생을 내세울 것 없는 비둔한 제사장으로 초라하게 마무리하였어도, 엘리 제사장이 노쇠하여 늙었을 때 영적인 대물림을 받는 이는 사사시대를 끊고 신앙의 전환기를 맞게 하는 사무엘이었고, 일생을 헌신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무엘이 늙었을 때는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습하며,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후대에 비웃음을 받고 있는 사울이 사무엘의 후계자였던 것이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지 않다. 인간의 경험은 상대적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 때문에 나의 경험을 전수해줄 뿐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후대에 안내해야 한다. 사무엘은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엘리야의 제자인 영성을 갑절이나 받았던 엘리사와 같은 후배를 사무엘은 보지 못했고 전수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깊이조차 안내하지 못했다. 현대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려면, 현재의 신앙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교회공동체를 전환할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나보다 깊은 영성과 은혜를 받은 누군가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을 뛰어넘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후배들에게 내가 경험한 전부를 안내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께 안내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 B. 참여함 - 한나의 참여와 결단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사무엘의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을 때에도 사사시대의 배경을 알고 그 시대의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사기 21장 25절의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전제이다. 그들은 왕이 없고 기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기준을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못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필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행동과 결단을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 - 참여함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사무엘상 1장 1절~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슥의 현손이더라 (2)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상의 도입은 한나의 가정의 배경으로부터 시작한다. 사사시대속의 한 가문이며 한 가정이다. 우리는 도입부의 정보들로 인해 한나의 주변 환경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엘가나가 살았던 곳과 그의 가문 내력을 말한 후에 엘가나와 살고 있는 아내 두 명을 소개한다. 두 아내의 이름은 한나와 브닌나였다. 여기서는 엘가나가 아내를 두 명 취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sup>48</sup> 뿐만 아니라 한나의 가정은 물질적으로만 풍요한 것이 아니다. 한나 이야기는 지역과 인물을

<sup>48</sup> 강지현, “한나의 기도를 통해 본 ‘마음을 쏟는 기도’ ” (Th.M.,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2017), 5.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시작된다. 첫 문장에는 아홉 개의 고유명사가 나타나는데, 셋은 지명이고 여섯은 인명이다. 이것은 막연히 ‘옛날 옛적에’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즉 도덕적인 교훈을 목적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는 네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특정한 장소의 한 남자 앞에 선다. 에브라임 지역은 비옥하고 아름다우며 축복을 받은 곳이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신 33:13-14)’ 네 세대를 자세히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엘가나는 벼락부자가 아니라 명문가 출신이었을 것이다.<sup>49</sup>

한나의 가정 배경을 보면 남부럽지 않은 환경임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행복만 가득한 분위기의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시대에도 미디어매체에서나 여러 주변 플랫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적 성공이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물질적 가치관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시대이다. 여기에 우리는 그들의 삶의 전체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표면적으로 이루어진 성공을 보고 부러워할 뿐이다. 성경은 한나의 가정이 부할 뿐 아니라 가문도 출중함을 먼저 기록한다. 그리고 한나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부유한 환경과 대조하여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이야기한다. 대한민국도 경제가 많이 성장하였지만 행복지수가 높지 못하며, 자살률도 매우 높다. 겉으로 부해 보이는

---

<sup>49</sup>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상』 (서울: 복있는사람, 2009), 31.

환경속에서 마음이 빈곤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참여함으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아야한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중 한 여인인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여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늘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정보이지만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지역과 조상과 집안의 풍요로움과 가족의 다복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우리의 시선은 곧 한나의 불행한 처지로 옮겨진다.<sup>50</sup> 한나의 인생은 다복한 것 같았지만 우리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구절을 읽은 후 곧바로 간절함과 절망과 눈물과 애절한 기도로 점철된 삶의 현장을 만나게 된다.<sup>51</sup>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엘가나의 또 다른 처인 브닌나가 자식들을 데리고 한나를 격분시키며 처절한 한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한나가 슬퍼하는 이유는 우리의 공감보다 더 처절하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듯하다. 복종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지 못한 경우라면 그 이유로 그 여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끊어졌거나, 혹은 끊어지진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저주나 징벌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런 사상 때문에 첩인 주제에 브닌나가 본처인 한나를 격분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브닌나가 매일 조롱하는 것입니다.<sup>52</sup>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sup>50</sup> Ibid., 31.

<sup>51</sup> Ibid., 32.

<sup>52</sup> 송태근, 『왜도난마 사무엘상1』 (서울: 지혜의샘, 2016), 23.

고민이 처절한 고통을 주었을 것이고 주변의 상황과 인물들이 한나의 고통을 더 극대화 시킨다. 생명이 없음은 자신이 마땅히 “첫째 아내”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오히려 오는 것은 무시와 멸시이다. 불임 모티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삶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위기와 갈등의 연속인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다.<sup>53</sup> 이것은 현대에서는 우울감으로 표현되었을지 모른다. 당시에는 그러한 의학 용어가 없기에 울고 먹지 않는다고 표현 한 것 같다. 사무엘상 1장 6절~8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우울증은 본시 슬픔이 너무 과도하게 깊어지고 넓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54</sup>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바쁘게 달려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주변 인물들로 그 문제의 고통이 극대화되고 문제를 헤쳐 나가기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 더욱 그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여 좋지

<sup>53</sup> 최용준, “성경에 나타난 불임 모티브에 대한 소고 -한나내러티브(삼상1:1-28)를 중심으로-” (Th.M.,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2010), 74.

<sup>54</sup> 이명희, “우울증 회복의 기도 영향력에 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M.A.,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11), 10.

못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어떤 노력에도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한다. 이 불임은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을 보여준다. 생명에 대한 아무런 주권이 없는 인간에게 불임은 그 자체로 절망이다. 어떠한 노력도 무위로 돌아간다. 한나가 무슨 노력인들 안 해 봤을까?<sup>55</sup> 인간의 무기력함은 또다른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주저 앞을 것인가? 아니면 이겨내고 나아갈 것인가의 선택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선택의 갈등속에 살아가고 있다. 어려움을 겪으며 난관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며 때로는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 앞은 경험들도 많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극복하여야 한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안에 참여 해야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상담 해야한다. 하나님은 지혜와 따뜻함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하는 상담 작업은 그야말로 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고로(苦勞)를 토해내며 지혜를 구하고, 더불어서 책망과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그분의 상상도 못할 자애를 경험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백과 회개는 이루어진다.<sup>56</sup> 한나의 선택은 이 시대 사람들이 따라야 할 방향성이다.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무기력감, 그리고 우울함이 있는 중에서 한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한나를 위로해줄 분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실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 한나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나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sup>55</sup> 최용준, “성경에 나타난 불임 모티브에 대한 소고”, 74.

<sup>56</sup> 이명희, “우울증 회복의 기도 영향력에 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29.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엘리 제사장도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할 정도였으니 선택의 메뉴얼을 교육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결단은 특별한 행동이었다. 한나는 사무엘 상 도입 부분에서 사사기의 오래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매년 발생하는 갈등과 절망의 순환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나의 첫 행위가 바로 ‘일어남’이다. 한나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그 곳으로부터 일어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연다. 칠십인 역은 이 부분을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번역했는데 칠십인 역이 옳다면 한나의 일어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일어남’이다. 즉,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 일어남이다.<sup>57</sup>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든지 선택에 상황에 놓였을 때 절망을 딛고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야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신앙공동체에 참여하는 출발점이다.

한나의 기도는 고통가운데 울부짖으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한 그 시대에 한나는 인생 중 깊은 고민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다. 한나는 이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임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제는 더 이상 울고불고 하는 식의 연례행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굳힌 것이다.<sup>58</sup>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함으로 나아갈 때는 간절함을 동반하여 나가야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야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후에 기도를 위한 비유를 말씀하신다. 밤중에 벼이 떡 세덩이를 꾸어 달라하면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며

<sup>57</sup> 김구원, 『사무엘상』 (서울: 홍성사, 2014), 47.

<sup>58</sup>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상』, 39.

덧붙이신 내용이다. 누가복음 11장 8절~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간청하면 간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일어나 요구대로 주신다고 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라고 하신다. 간절하게 간청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함으로 나아갈 때에는 간절함을 동반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한나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 하나님께 간절히 일어나 나아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한나의 기도 변화에 주목해야한다. 한나는 괴로워서 야웨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10절) 자신의 기막힌 고통과 울분을 하나님께 쏟아 놓기 시작한 것이다. 한나의 오염어린 기도는 서원 기도로 승화되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1절)<sup>59</sup> 어찌 보면 한나는 아이가 없어 통곡하고 울분을 쏟아 놓다가 갑자기 아이를 드리겠다 기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1절~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11)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

<sup>59</sup> Ibid., 40.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에게 자식이 생선을 달라하고, 알을 달라하면 뱀이나 전갈등 나쁜 것으로 주시겠냐고 반문하신다. 오히려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자식이 너무 어려서 잘못 구할 수 있는 것이다. 3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도 놀아보겠다고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주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맞는 좋은 것으로 주었을 것이다. 자식이 혹여나 잘못 구하여서 뱀을 달라 하거나 전갈을 달라 하거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부모라면 뱀을 바꿔서 생선으로 바꿔주고 전갈을 달라 하면 알로 바꿔 줄 것이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아버지 보다 더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니 하나님께 간절히 일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혹여나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간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다. 한나의 간절한 간청함이 아이 없음으로 인하여 기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다. 한나의 기도를 지켜본 엘리는 여호와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한 생각으로 한나를 다그친다. 사무엘상 1장 9절~16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시에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술에  
 취해 하나님께 나왔는지를 암시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한나의 대답은 단호하고  
 단도직입적이다. 자신은 독주에 취하지 않았고 다만 마음이 원통한 자임을  
 직고한다.<sup>60</sup> 한나의 이 고백속에서 한나의 기도가 바뀐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한나는 자신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고  
 이야기하였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였다. 슬픔과 절망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참여를 한 것이다. 슬픔의 표면적 원인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인데  
 한나의 서원기도를 보면 처음의 기도할 때 마음가짐과 달라지는 점을 볼 수가 있다.  
 송태근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브닌나의 조롱도, 세상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도 다 끝나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

<sup>60</sup> Ibid., 40.

주시면 도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sup>61</sup>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기도하였고 슬픔과 절망감을 가지고 기도하였는데,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다. 한나는 엘리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이라고 변론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기도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자식이 있지않는 것이다. 사무엘상 1:2-3절은 병치구조로 되어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기록함으로서 하나님이 부재함으로 마음 아파하심을 표현하셨다. 송태근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지요? 이것이 병치 구조가 되려면 이다음에는 ‘없고’ 가 와야 맞는데, 성경기자가 여기는 침묵하고 지나갔어요. 쉽게 말해서 괄호치기를 한 것입니다.”<sup>62</sup>

사무엘상 1장은 이 병치구조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브닌나에게 있지만 한나에겐 없는 자식을 대비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지만 하나님께는 진실한 제사장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이 없는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한나는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갔다. 그 기도 중에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것이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자식이 없어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sup>61</sup> 송태근, 『쾌도난마 사무엘상1』, 25.

<sup>62</sup> Ibid., 21-22.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대면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실인으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게 된 것이다. 나실인 제도는 광야에서 가나안 농경 문화 지역으로 유입해 온 이스라엘이 광야의 순수한 야웨 신앙전승을 유지하는 한편 이스라엘 야웨 신앙의 가나안 바알 종교화를 저지시키기 위해 레위 지파가 아닌 지파 출신들을 성직자로 영입하는 제도였다.<sup>63</sup>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된 가나안의 농경문명에 매우 많이 뒤쳐져 있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는 가나안 우상신앙을 기반으로 형성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수준이 뒤쳐져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이 가나안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다.

이 나실인 제도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막는 데 있었다. 나실인이 되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외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당시에 포도주는 가나안 농경문화의 상징이자 광야 유목민적 전통을 가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독한 유혹이었다. 한나는 태어날 아들을 위해 나실인 서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시대가 안고 있는 영적 기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처하려고 한 것이다.<sup>64</sup> 한나는 자신의 환경에 의해 기도로 참여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합으로서 시대를 분간하여 하나님께 자신과 아들을 거룩하게 드렸다. 한나는 단순히 하나님을 대면하다가 깊숙한 곳까지 나아가게 되고, 깊숙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나의 신앙의 시각이 바뀌어 하나님과 통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의 동일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원하였다.

<sup>63</sup>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상』, 43.

<sup>64</sup> Ibid., 44.

이러한 한나의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 깊은 참여라 할 수 있다.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 중 참여함은 전인격적으로 몰입하여 함께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외적인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여 깊이 참여한 사건이다. 결국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참하는 기도가 되었다. 하나의 기도는 그녀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참여의 기도였으며, 레너드 스윗의 ‘참여함’의 개념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 C. 이미지 - 법궤를 빼앗김

인간은 신과 자신들 사이의 유대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대성 혹은 증표를 요구한다. 이를 반영하듯이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 해당하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등지의 종교들은 한결같이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sup>65</sup> 그러나 유독 이스라엘에게 신상은 금지 대상이다.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신상과 다른 법궤가 존재한다. 법궤는 야훼의 보좌로서 보이지 않는 야훼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상이다.<sup>66</sup> 하지만 야훼는 신전에 거주하는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달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sup>65</sup> 강성열, 『고대 근동 세계와 이스라엘 종교』(서울: 한들출판사, 2003), 269.

<sup>66</sup> 김성은, “법궤의 패러다임 변화 연구”(Th.M.,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2), 42.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분임을 법궤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sup>67</sup> 법궤는 이스라엘에 보호의 상징이며 임재의 상징이며 언약의 상징이다. 법궤의 모습에 대하여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10)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하고” 법궤는 조각목(혹은 아카시아 나무)으로 제작되었으며, 크기는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다. 이를 환산하면 길이가 약 125cm, 너비가 75cm, 높이가 75cm인 직육면체로, 작은 상자이다.<sup>68</sup> 구약성경에서는 이 작은 상자가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준다. 구약에서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마음 중심에 큰 이미지로서 자리 잡혀 있는 것이다. 법궤는 이스라엘에겐 상징적인 존재였다. 광야에서 법궤는 늘 이스라엘 진영의 선두로 나아갔다. 민수기 10장 35절~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35) 궤가 떠날 때에는 모사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흠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법궤는 늘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였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가까이 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스라엘 진영의 선두로 갈 때에 여호수아 3장 4절에서는 법궤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의 거리를 이천규빗(약 1km)으로 명시하고 있다.<sup>69</sup> 법궤를 함부로 가까이 했을 때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19)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sup>67</sup> 윤덕선, “법궤의 역할과 신학적 의미” (Th.M., 연세대학교, 1990), 51.

<sup>68</sup> 김성은, “법궤의 패러다임 변화 연구”, 16.

<sup>69</sup> Ibid., 28.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벤세메스 사람들의 법궤를  
 가볍게 여긴 마음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또 사무엘하 6장 6절~7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6)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성경은 웃사의 죽음의 이유를 웃사가 잘못함이라 칭하고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기록한다. 법궤를 빼앗겨 법궤가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에 있을 때에는  
 다곤이 궤 앞에 엎드려져 모두 끊겼다. 사무엘상 5장 2절~4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2)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3)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리고 5절에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쳤다고 기록한다. 법궤가 가드와 에그론으로 옮겨갈 때 역시 독한종기로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였다. 이렇듯 법궤는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우리  
 공동체 속에 임재하신 야훼 하나님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거룩하며 경외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세상이 다 알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법궤를 통해 드러내시는데 스스로  
 드러내신다. 하지만 이 법궤와 가까이 지내며 복을 받았다는 사람의 기록도 있다.  
 사무엘하 6장 10절~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10)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 여호와와 그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벰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전에도 법궤는 20년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왔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 사무엘상 7장 1절~2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1) 기랴트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그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와 그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 궤가 기랴트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런데 법궤를 모셔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오벰에돔의 집에만 있다. 오벰에돔은 법궤를 모신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오벰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물러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복이 세월의 년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비나답의 집의 20년과 비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법궤의 권위와 능력만 믿고 가면 안된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교회안에 소속되어 자고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보좌를 가며이 여기는 일일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법궤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한다. 하나는 법궤를 보좌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법궤를 상자로 인식하는 것이다.<sup>70</sup> 이것은 두 개의 이미지로서 이스라엘에게 존재한다. 보좌 패러다임은 법궤 위에 앉아 계시는 야훼의 임재에 기초해 있는 반면 상자 패러다임은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기록된 두 돌판은 보관하는 기능에 기초해있다.<sup>71</sup> 이것을 현대교회에 대입 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인식 하거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두 개의 어떠한 인식, 즉 이미지만 우리는 하나님앞에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인지해야할 것이다.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를 잃어버린 장면은 자신들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으면서 지금껏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랐던 오만함의 결과이다.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 장면으로 시작한다.<sup>72</sup>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첫 충돌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난다. 이 때 이스라엘에서 4천명이 전사한다.<sup>73</sup>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한다. 본문은 이 결정을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내렸다고 말한다. 이들은 누구인가? 보통 ‘장로들의 회의’ 라고 부르는 이 모임은 사사 시대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에서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비정기적으로 모여 중대사를 결정했다. 예를 들어, 베냐민이 지파 간 내전으로 멸절했을 때 그들이 다시 번성할 묘안을 제시한 곳이 장로들의 회의이며(삿 21:16-19), 사무엘에게 찾아가 왕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들도

---

<sup>70</sup> Ibid., 2.

<sup>71</sup> Ibid., 6.

<sup>72</sup> 김구원, 『사무엘상』, 114.

<sup>73</sup> Ibid., 115.

장로들이었다.(삼상 8:4)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진영으로 가져올 것을 결정한 것도 이러한 전통이다. 장로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sup>74</sup> 민수기 10장 35~36절에는 언약궤가 전쟁에서 담당할 역할을 암시하는 기도문이 보존되어 있다. “[궤가 움직일 때]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흠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궤가 설 때]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또한 민수기 14장 44절은 여호와의 궤와 모세가 산으로 가는 이스라엘 군대와 동행하지 않고 진영에 남았고, 전쟁에 패했다고 기록한다. 여호수아 6장을 보아도 여호와의 궤가 여리고 전투에서 담당할 결정적 역할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전투에 패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려 했다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능한 신이 승리를 가져다주리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패한다.<sup>75</sup>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지만 패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부패하였다.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마음은 그들의 신앙의 생활과 매우 모순된 확신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던 것이다. 사무엘상 4장 7절~9절은 이렇게

---

<sup>74</sup> Ibid., 114.

<sup>75</sup> Ibid., 117-118.

말씀한다. “(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9)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은 범קה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두려움은 ‘화로다’ 라는 용어의 반복(4:7-8)과 블레셋 백성들의 야웨에 대한 고백(4:8)을 통하여 잘 나타난다. 블레셋 백성들은 야웨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임을 고백하였다.(4:8). 즉 야웨 하나님과 싸워서 승산이 없음을 인정 한 것이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의 반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를 독려하면서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 야웨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임을 언급한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4:9). 이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것이 야웨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실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sup>76</sup>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전쟁하러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각 에벤에셀과 아베크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미디안과

<sup>76</sup> 김영관, “삼상4:1b-7:17에 대한 구조 분석적 해석-범קה내러티브(4:1b-7:2)를 중심으로-” (Th.M.,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 55-56.

시내 산에서 인격적이며 주권적인 분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신으로 바꾸려 했다.<sup>77</sup> 그들은 법궤 자체에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보다 외적인 상징에 집착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종과 믿음은 뒤로한 채 형식과 외적인 이미지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에서 이미지는 신앙적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시각적이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였다. 법궤는 단순한 성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인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이미지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오용하면 오히려 신앙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이미지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상징적 의미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고 왜곡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무엘서의 법궤 사건을 통하여 사회에 만연한 신앙의 왜곡을 바로잡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 메시지를 전하셨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적의 상징임과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의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

<sup>77</sup> 송태근, 『궤도난마 사무엘상1』, 71.

백성들을 꺼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언약의 돌판과 죽은나무에 살구꽃이 핀 기적의 스토리가 있는 지팡이, 그리고 40년 광야기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신 만나가 들어있는 언약케이지만,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부셔져 두 번째 돌판에 새긴 것이 되었고, 살구꽃이 핀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반역 후에 생긴 것이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이셨지만 여전히 불순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한다. 떡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앙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전쟁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였다. 잘못된 인식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인식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당시의 적군 블레셋이나 동일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케를 그들의 주요 도시인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그들의 최고 신인 다곤의 신전에 모셔 두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sup>78</sup> 또한 그들이 생각할 때, 언약케를 빼앗았다는 것은 그 유명한 출애굽의 하나님을 사로잡은 것이었다.<sup>79</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법례를 빼앗기게 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주권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신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 관념을 가진 백성들, 블레셋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법례를 빼앗기게 하셨던 것이다. 블레셋에게 언약케를 빼앗긴 사건은 당시 실로에 만연된 종교적 부패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증거였고, 블레셋은 그 심판의 도구였다. 그 심판은 우발적 사건도 아니고, 아무 계획 없이 일어난 일도 아니다. 2장 27-36절의

---

<sup>78</sup> Ibid., 74.

<sup>79</sup> Ibid., 76.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3장 11-18절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충분히 경고하셨다. 언약궤는 그 심판을 완성시키는 핵심 역할을 했다. 언약궤가 그것을 맡은 자를 재가(裁可)한다고 백성들이 생각했다면, 그들을 그런 미신에서 깨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였겠는가? 언약궤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sup>80</sup>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목도해왔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경험한 하나님과 신앙공동체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숙제를 안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길 때, 교회는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신앙 외에 교회의 세력을 위하여 외적으로 치중 되어있는 모습은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도구로 삼으려 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사건과 다르지 않다. 한국교회가 자신들이 품고 있는 ‘언약궤’만을 지키려는데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교회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상자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며 말씀과 이상이 현현해야 한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념과 태도를 돌아보고 변화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마치 우리가

---

<sup>80</sup> Ibid., 73.

소유 하려 하고 무기 삼으려 하였던 ‘언약궤’ 를 빼앗기게 하여 외적인 권위를 상실케 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뿐 만 아니라, 교회 밖의 비 기독교인들에게도 전하는 경고이자 교훈이다.

#### D. 연결됨 - 미스바로 모이기

웹 세계에서 즐겨 사용되는 두 개의 단어는 ‘연결(connected)’ 과 ‘공동체(community)’ 다. 실제로 그 두 단어는 ‘연결 공동체(connexity)’ 라는 새로운 단어로 하나가 되었다.<sup>81</sup>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EPIC 이론 중 ‘연결 공동체’ (connexity)는 우리가 사는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통해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우리는 미스바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다.

사무엘상 7:2절 “제가 기랴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동안을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선포되었다.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엘리의 시대와는 다르다. 사무엘의 꾸준한 말씀 사역으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 한 것이다. 히브리어

---

<sup>81</sup>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63.

‘나하’를 ‘(여호와를)사모하다’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무엘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에는 종교개혁의 조건이 조성되었다.<sup>82</sup>

언약궤가 기랏여아림에 안치된 지 20년이 지났다. 본문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 장에 묘사된 ‘종교 개혁’의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점이다.<sup>83</sup> 기랏여아림에 안치된 언약궤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었고, 한 목소리로 종교 개혁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기랏여아림에 머물렀던 20년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공동체로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시간이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자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 됨은 단순히 표면적인 협력이나 활동의 일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그 연결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하나 됨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회복의 열망이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깊이 자리 잡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사시대의 모습을 탈피하고 전환기를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진정한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사무엘로부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갈급 하였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리가 교회마다 터져 나온다. 한국의 개 교회들이 오랜 세월 기도하며 기다려온 회복과 부흥은 표어나 구호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허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sup>82</sup> 김구원, 『사무엘상』, 162-163.

<sup>83</sup> Ibid., 162.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일 것이다.

신약의 예수님께서서는 씨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졌을 때 땅이 옥토로 준비 되어있어야 온전한 결실을 맺는 것이다.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시간 준비된 마음의 상태에 선포된 말씀은 마치 옥토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언약궤가 기랴역아림에 머문 20년 동안,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토양을 기경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변화를 원하고 부흥을 원하고 성장을 원한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돌밭, 가시 떨기 밭을 제거하고 옥토로 기경해야 하는데 묵묵히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시기에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다. 사무엘상 7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3)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4)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서 7:3~4절은 사무엘의 설교를 요약한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는 사무엘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해 애통했다.” (개역개정에는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는 2절의 언급을 연상시킨다. 즉 블레셋이 주는 고통에서 나오는 수동적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담은 적극적 애통함이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주는 고통으로 마음이 가난해진 백성들을 참된 회개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는다.<sup>84</sup> 사무엘의 설교는 고통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블레셋으로부터 받은 억압과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그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회개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통 그 자체가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통은 회개의 시작점일 뿐, 참된 변화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전적인 의지와 결단에서 비롯된다. 사무엘은 이러한 전심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사무엘은 단순히 설교자의 역할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억압에서 벗어나기만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사명을 감당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세 가지 조건을 가르친다. 첫째,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sup>85</sup> 회개의 둘째 조건은 이방신들(바알들과 아스다롯) 제거다.<sup>86</sup> 회개의 세 번째 조건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모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 다신교가 상식적인 대세였음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와 다른 이방 신을 겸하여 섬기는 유혹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다. 사무엘은 하나님만

---

<sup>84</sup> Ibid., 163.

<sup>85</sup> Ibid., 163.

<sup>86</sup> Ibid., 164.

섬기라고 가르친다. 이 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sup>87</sup> 백성들은 사무엘의 권면을 듣고 사무엘의 가르침에 즉각 반응하여 각자의 집에 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sup>88</sup> 단순히 단합이 잘되는 공동체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아래 서로 연결된 공동체였다. 먼저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고,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이스라엘에겐 블레셋의 위협이라는 공통적인 공감대 있었다. 이들 앞에 놓인 여러 요인들이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모두 미스바로 모였다. 미스바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미스바에 모인 적이 있었음을 고려하면(삿20-21), 블레셋 사람들이 금번 미스바 집회를 성전(Holy War)을 치르는 예비 집회로 오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공격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sup>89</sup> 아니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회의 자유가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집회를 반역적이고도 위험스럽다고 간주해 금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이 모임 때마다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대응했고 더구나 한 번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을 없앨 기회를 쉽게 놓칠 리 없었을 것이다.<sup>90</sup> 블레셋이 크게 억압하는 시대에 대중 집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무엘도 온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모은 것은 회심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확신했기

---

<sup>87</sup> Ibid., 164.

<sup>88</sup> Ibid., 165.

<sup>89</sup> Ibid., 167.

<sup>90</sup> Ibid.

때문이다.<sup>91</sup>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 이 행동은 그들이 오랜 시간동안  
결속되어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을 열망했고  
구원을 바라왔다. 하나님의 말씀선포 아래 하나로 연결된 마음은 세상을 뒤집을만한  
힘이 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회개로 하나되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연결적 공동체가 된다면 블레셋과 같은 현실적인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가 될 것이며 이 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부흥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

<sup>91</sup> Ibid., 168.

## 제 V 장

### 에픽이론 적용의 실제 - 광주영락교회 사례

#### A. 광주영락교회 중등부

에픽이론을 적용은 현재 필자가 섬기며 사역하고 있는 광주영락교회 중등부 교사와 학생들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기존의 중등부 사역들은 일반 교회의 부서 사역과 거의 비슷 하였다. 주일에 한번 모여 예배드리되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하던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예배드렸었다. 중등부는 많은 부서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과 소통하기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서이다. 오랫동안 섬기셨던 중등부 선생님들도 중등부 사역에는 난감한 기색들이 역력하였다. 중등부서 첫 회의에서의 많은 요구사항과 어려움들을 말씀하셨다. 광주영락교회 중등부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며 오래토록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해 왔다. 필자는 2025년부터 중등부에 부임하여 에픽 이론은 적용하여 부서를 운영하였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적용한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고 변화된 모습들과 평가들을 나누어본다.

#### B. 에픽을 적용한 중등부 공동체

##### 경험적 공동체

사춘기 중등부 아이들과 공동체 훈련을 위하여 리트릿(일명: 영락게임)을

기획하였다. 1박2일이었고 아이들을 초대해 게임에 참여하는 설정이었다. 아이들은 함께 다과를 나누고 게임하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텐트도 같이 쳐보며 다양한 경험적 활동을 하였다. 앞서 겨울 수련회도 대전침례신학교로 다녀왔지만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자체 리트릿을 기획하였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즐거운 추억이 되는 공동체 훈련이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훈련은 아이들에게 다음 행사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공동체 훈련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오징어게임을 모티브로 하여 복장과 게임 내용, 그리고 분위기를 연출하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금요일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은 다음날 새벽예배에도 참여하게 하여 아이들이 새벽예배를 경험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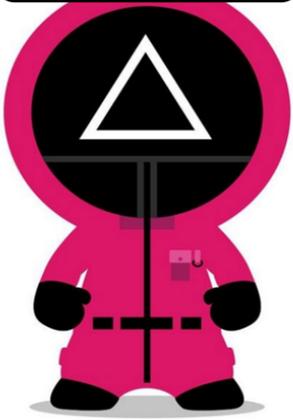
<그림1. 중등부 리트릿 홍보물>

	시 간	행 사 명
<p style="text-align: center;"><b>2025년 중등부 리트릿 안내</b></p> <p><b>주제 “너! 그리고 나!”</b></p> <p><b>목적</b> 중등부 남녀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친해지는시간</p> <p><b>기간</b> 2025.1.31. ~ 2.1</p> <p><b>장소</b> 광주영락교회 지하1층</p> <p><b>준비물</b> 세면도구, 무릎담요(이불)</p>	PM 6:30~7:00	여는 예배
	PM 7:00~8:30	게임
	PM 8:30~9:00	텐트설치
	PM 9:00~10:00	팀별간식타임
	PM 10:00~11:00	팀전게임 (말씀완성)
	PM 11:00~11:30	전체모임
	PM 11:30	취침
	AM 5:00~5:50	새벽예배
	AM 6:00~6:50	아침식사
	AM 7:00~	폐회

**광주영락교회**

중등부 리트릿

2025.01.31 - 02.01



<그림2. 중등부 리트릿 행사 모습>



### 참여적 공동체

부활절 달걀 부화 프로젝트를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달걀 부화에는 3주가 걸리는데 2시간에 한 번씩 전란을 해줘야 한다. 환경적으로 사육자나 교사가 대부분 달걀 관리를 하지만 중등부 아이들에게 맡겨진 달걀들은 아이들이 하교시간에 교회 중등부실에 방문하여 달걀을 전란 하도록 참여를 유도하였다. 아이들은 참여하며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범위를 같이 하여 수동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었을 때, sns중에 인스타그램을 선호한다고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의 소통창구나 홍보창구를 인스타그램으로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홍보물을 그들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하였다. 처음 아이들에게 카페나 식당 이벤트처럼 홍보하고 인증한 친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줄까 계획도 하였지만, 대가를 바라는 참여는 수동적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그림3. 달걀 부화 프로젝트>



이렇게 공동체를 경험한 아이들은 교회 전체 행사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지금껏 교회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아이들이 이번에 교회전체 웃놀이 대회에 참가하여 전 기관부서에서 2등을 차지하였다.

<그림4. 광주영락교회 웃놀이 대회 참여현장>



중등부 교사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아이들을 위하여 즐거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영입으로 더욱 부서가 활발해졌으며 2025년에는 전례

없는 중등부의 활동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오래토록 중등부 사역을 하였던 선생님들도 과거의 경험이 시너지가 되어 의견을 아끼지 않았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 다시한번 생기를 찾고 있다.

<그림5. 늦게까지 회의하는 중등부 선생님들>



### 이미지 공동체

중등부는 영락게임이나 리트릿에서 오징어게임의 이미지를 활용하였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로고의 이미지가 아니다. 광주영락교회 중등부는 늘 중학교 아이들의 곁에서 지지하며 함께 하길 원하고, 소통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의 생각속에 심기길 바랐다. 달걀 부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에도 요즘 시대에 교회는 한주에 한번 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속에서 아이들에게 교회는 친근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 연결적 공동체

중등부는 교회 근처에 있는 중학교의 학생들과 연결고리를 찾으려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 설교시간에 아이들에게 “요즘 넷플릭스 이슈가 무엇이냐” 물어 보았을 때 오징어게임2를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 중등부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오징어 게임 로고를 교회에 맞춤형으로 변형하여 아이들과 문화적으로 공감하며 소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연결고리를 구상한 것이다. 중등부 하교 시간 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옷을 입은 채 학교 앞과 교회 오는 중간중간의 4지점에 딱지를 치는 공간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기회는 단 한번으로 딱지치기에 승리한 아이들만 ‘영락게임 참가’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수용적으로 게임을 진행하지 않았다. 전도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보다 교회가 학생들과 함께 친교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장기간 프로젝트로 혹시 당일 게임에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주간에 또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하였다. 딱지치기에 이겨서 ‘영락게임 참가’ 쿠폰을 받은 학생은 가볍게 할 수 있는 4가지 게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중간에 실패하게 되면 역시 기회는 없게 된다.

하교시간 아이들이 붐비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게임은 간결하고 심플하며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혹시나 모든 게임을 통과하게 되면 퀘스레 기분도 좋아지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모두 교회 밖에서 진행되며 몇 주 동안 같은 시간에 진행되고 따로 아이들에게 부연설명 하지는 않아도 아이들이 당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 그 아이들과 공유할 공감을 만들었다.

<그림6. 학교전도: 영락게임 기안>

**영락 게임 기안 (부대행사:분식데이)**

- 1. 행사 개요
  - 행사명: 무등중학교 학생 대상 전도 게임 행사
  - 목적: 게임을 통한 흥미 유발 및 심도 제공을 통해 전도의 도구로 활용
  - 주최: 영락교회 중등부
  - 행사 3일 2회 / 학교시간에 맞추어
  - 장소: 무등중학교 입 및 영락교회 주차장
  - 대상: 무등중학교 학생
  - 평가 방식: 목지치가 성공자에게 본게임 참가권(스텝트 훈지) 지급 후, 주차장에서 본게임 진행
- 2. 행사 진행 방식 (모든 게임은 15분으로 진행)
  - 요강 단계 (무등중학교 앞)
    - 행사 진행자가 무등중학교 앞에서 목지치가 게임을 진행하며 참가자를 모집
    - 목지치가에서 승리한 학생에게 스텝트 4개를 받을 수 있는 게임 초대장 (훈지) 배부
    - 요강 담당자는 목지를 충분히 준비하고, 요강한 심사를 위해 심판 역할을 수행
  - 본게임 (영락교회 주차장)
    - 주차장 내 4개 방에서 다양한 항목 놀이 게임 진행
    - 입구에서 참가자 확인 (목지를 지급한 학생)
    - 참가자 정보 기록 (이름 및 전화번호) - 게임 훈지 준비
    - 미션 성공 시 제공될 심도 및 게임 규칙 안내 - 안내서 준비
- 게임 진행 (4개 란트, 각 게임별 준비물 및 진행 방식)
  - ▶ **바석 차기:**  
준비물: 작은 볼 또는 나무 조각, 바석 역할을 할 수 있는 볼체  
진행 방식: 참가자가 일정 거리에서 볼을 던져 바석을 넘어뜨리면 성공
  - ▶ **세기 차기:**  
준비물: 세기  
진행 방식: 참가자가 접혀진 현수 이상(예: 10회) 연속 세기 차기 성공
  - ▶ **공기 놀이:**  
준비물: 공기볼  
진행 방식: 접혀진 게임 방식에 따라 5단계 성공
  - ▶ **말이 돌리기:**  
준비물: 말아와 말아 줄  
진행 방식: 참가자가 일정 시간(예: 10초) 이상 말이를 회전시키면 성공  
\* 게임 순배 시 참가권(훈지) 획득 및 훈지 지급 (연락)
- 3. 부대 행사
  - 참가자 모든 인원에게 분식(간식) 제공
  - 간식으로 떡볶이, 어묵, 감자, 음료 제공
  - 간식 제공 구역 안쪽 요양을 배치하여 원활한 배식 진행
- 4. 기대 효과
  -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하면서 교회와 친숙해질 기회 제공
  - 전도 놀이를 통한 전도 관심 및 긍정적인 교회 제공
  - 심도 제공을 통해 관여 유도 및 전도 효과 극대화

C. 에픽 적용된 중등부 공동체에 대한 평가 및 인터뷰

2025년도에는 중등부에 에픽이론을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필자는 기존의 방식으로 중등부 부서를 사역하였던 경험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2명을 선발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두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 내용이 논문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밝힌 후 동의를 얻었다.

5년 봉사하신 중등부 교사(김00 권사님)

전에는 대 예배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아이들 맞춤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변화가 느껴진다. 아이들이 변하고 시대가 변화하니 중등부의 예배도 바뀌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설교가 짧아지다 보면 요즘아이들이 모든 것이 긴 것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말씀의 메시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설교해 주셔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덜 지루한 것 같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 어렵지 않게 목회자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배 중간중간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니 아이들의 환경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모습 같다. 예배 참여의 부분은 중등부 자체가 원래 어려운데, 그래도 지나가면서 중등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지가 보이고 중등부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는 것 같다. 가장 달라진 것은 전에는 예배 끝나면 중등부 실이 텅 비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예배 후에도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간식 같은 것도 예전에는 들고 가버리는데 지금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나눠 먹는 모습은 많이 발전되어 보인다. 많은 젊은 여전도회(부모님) 분들의 평가들도 들리는데 정체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잘 흘러가는 것 같다고 들린다. 프로그램 진행들은 작년에 비해(작년은 정형화된 프로그램, 수련회 등) 지금은 많은 헌신이 필요해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부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만일 우리가 연초에 이런 행사들을 하지 않았다면 중등부 아이들이 장년 프로그램에 참여했을까? 생각이 든다. 그만큼 아이들의 큰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인다.

### 7년 봉사하신 중등부 교사(이00 권사님)

아들이 초1 들어가면서부터 중등부를 섬기기 시작하였는데 나에게 중등부 사역은 버거웠다. 이유는 중등부 아이들이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공과 할 때뿐만 아니라 예배의 전체 분위기가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딱딱하고 무거웠는데 아이들은 더군다나 말이 없으니 중등부 교사가 나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교류들이 없고 생일파티도 ‘생일 축하합니다.’

이정도라면 하고 부서가 수련회 외에 활동을 많이 하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버겁다고 생각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맡으신 선생님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맡아 해 주셨다. 총무 선생님께서 앞에서 아이들과 게임과 소통을 통해 교류를 해주시고, 부장 선생님도 바쁘신 중에 부서 운영을 잘해 주시고,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아이들과 소통하시며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매주마다 예배의 모습들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나눔이 되었다. 이번에 시행하였던 영락 게임, 리트릿, 전도 프로그램 등은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7년 봉사하는 동안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고 수련회 외엔 주일예배만 드렸다고 볼 수가 있다. 올해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다. 지금까지 우리 교사들은 말이 없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인데 지금은 서로 의견을 내며 주도적이며 참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예배의 분위기 또한 찬양이 살아있고 환경도 바뀌어 지고 아이들이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 본다.

## 제 VI 장

### 결 론

#### 요약

본 연구는 사사시대의 전환기에 있는 사무엘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EPIC 관점으로 조명해보았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상황처럼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데 전수되지 않는 사사시대의 오랜 세월을 끊고,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양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사무엘 지도자가 양성되기까지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정과 순종 그리고 안내자의 역할을 함으로서 사무엘을 경험하게 하였고, 한나의 헌신과 기도의 깊은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또한 그 시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법제와 백성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공표함으로서 교회는 백성들의 수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임을 말씀한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시대의 배경과 사무엘과 및 공동체를 EPIC 관점으로 고찰해 봄으로서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광주영락교회에 EPIC 이론을 적용한 결과 길지 않은 시간동안 중등부 아이들이 변화되고 적극성을 띄고 있다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 분석

사무엘의 이야기는 말씀과 이상이 희미한 환경속에도 영적지도자와 다음세대가 어떻게 양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적 타락이 심각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제사장과 한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 주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세우셨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맞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소망이 있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전환하여 성장하기 위해서 EPIC의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의 장을 넓혀야 한다. 사무엘이 엘리제사장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였듯이 교회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 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둘째, 한나의 결단과 헌신 그리고 사무엘이 일생동안 헌신한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은 헌신하며 봉사하고 은사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교회면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흡니와 비느하스가 법제만 있으면 된다면 전쟁에 뛰어들어 장렬히 패배하였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여야한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결속되어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한 마음으로 모였던 것처럼, 같은 공감으로 같은 공간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교회 앞마당부터 시작하여 세상이 바뀔 것이다.

현대 한국교회가 직면한 세대 간 신앙 단절 문제를 극복하려면, 교회가 단순히

전통과 프로그램만을 강조하기보다 이 EPIC 이론이 제시하는 네 가지 측면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신앙 체험과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로써 순수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가 진정으로 서로 연결될 때, 다음세대는 교회 안에서 영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자라날 것이다.

EPIC 관점에서 본 사무엘 공동체를 한국교회에 고찰하며 적용했을 때 한국교회에 큰 도전이 된다. 사사시대와 같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가고, 세대 간 신앙의 전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충성된 지도자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헌신, 엘리야의 안내가 한 시대를 뒤바꾸었듯, 한국교회도 그에 상응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PIC 이론이 제시하는 네 요소는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교회는 참된 공동체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이는 곧, 사무엘과 같은 차세대 리더가 등장하는 토양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며,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번역서적

Brevard Springs Childs. 『구약 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Eugene Peteroson. 『사무엘서 강해』. 박성혁 역. 서울: 아바서원, 2020.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Mettinger, Tryggve N. D. 『하나님의 이름들』. 안종철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06.

### 국내서적

강성열. 『고대 근동 세계와 이스라엘 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3.

김구원. 『사무엘상』. 홍성사, 2014.

김영진. 『이스라엘의 구원자 야웨』. 서울: 이레서원. 2007.

김지찬.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9.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상』. 서울: 복있는사람, 2009.

송태근. 『쾌도난마 사무엘상1』. 지혜의샘, 2016.

### 논문, 잡지, 기타간행물

- 강지현. “한나의 기도를 통해 본 ‘마음을 쏟는 기도’.” Th.M.,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2017.
- 김규영.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와 역대기서의 관계성 연구.” Th.M.,  
대전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 김남일. “바알(Baal)과 이스라엘”. 「대학과 복음」 no 2 (1998), 117-134.
- 김성은. “법궤의 페러다임 변화 연구.” Th.M.,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2.
- 김세염. “사사기에 기초한 구속사적 설교형태에 관한 연구.” Th.M.,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3.
- 김영관. “삼상4:1b-7:17에 대한 구조 분석적 해석-법궤내러티브(4:1b-7:2)를  
중심으로-.” Th.M.,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
- 김진국. “사사기 17-18장의 문예적 구조분석 및 주해.” Th.M., 총신대학교대학원,  
2011.
- 윤덕선. “법궤의 역할과 신학적 의미.” Th.M., 연세대학교, 1990,
- 이명희. “우울증 회복의 기도 영향력에 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M.A.,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12.
- 조정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광야시대의 삶의 정황.” Th.M.,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 최용준. “성경에 나타난 불임 모티브에 대한 소고 -한나내러티브(삼상1:1-28)를  
중심으로-.” Th.M.,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2010.
- 탁명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전환기에 나타난 갈등연구.” Th.D.,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허성균. “레위성읍에 관한 연구 민수기 35장, 수 21장, 역대상 6장을 중심으로.”

Th.D.,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9.

## VITA

### PERSONAL DATA

Full Name: Sejun Choi

Place and Date of Birth: Gwangju Republic of Korea, Jan 5, 1982

Parent's Names: Cheolgyun Choi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b>Gwangju Mechanical Technical High School</b> 14, Seoljung-ro 315beon-gil,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Feb 12, 2000
<b>Kwangshin University</b> 36, Yangsan Taekjiso-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Bachelor	Sep 21, 2007
<b>Honam Theological University</b> 77, Jejung-ro, Nam-gu, Gwangju, Republic of Korea	M.Div.	Feb 23, 2015
<b>Drew Theological University</b>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	D.Min.	(expected to graduate)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ejun Choi

Jan 12, 2025